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퀀틴전시 플랜] 지정학 리스크 완화 & 실적 모멘텀 강화, 코스피 신고가 경신

- 미국-이란 협상 기대감에 위험 선호 확산, 코스피 신고가 경신
- 흔들리지 않는 실적/수주 모멘텀, 반도체/2차전지 동반 강세
- 업종별 호재로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되며 대형주 중심 강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산업 및 종목 분석

### [Issue comment] 삼성전기: FC BGA, 투자 확대는 1 위로 도약! (목표주가 67.3% 상향)

- 영업이익은 2026년 68%(yoy), 2027년 28.2%(yoy) 증가 등 고성장 전망
- FC BGA, 베트남에 추가 투자 예상, AI 분야에서 1위로 도약
- 밸류에이션 재평가 진행: FC BGA, MLCC의 수익성 확대, M/S 증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 [1Q26 Preview] HPSP: 다가오는 재평가의 시간 (목표주가 38.1% 상향)

- 수주 개선 속, 향후 2년간 최대 매출액을 매년 경신할 것.
- 반도체 장비 업계 내 최대 수익성의 가치가 재평가될 필요.
- 목표주가를 58,000원으로 상향. 매수 의견 유지.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 [1Q26 Review] LS ELECTRIC: 2026 년은 기대에서 혁신으로의 전환 과정

- 목표주가 217,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9%), 높은 프리미엄은 정당
- 1Q 영업이익 1,266억원(+45% YoY),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컨센서스 부합
- 2026년 영업이익 6,890억원(+61% YoY) 전망. 고객사 및 수주 확대 지속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 [Issue comment & NDR 후기] 한국금융지주: 브로커리지는 도울 뿐, 진정한 북 비즈니스의 강자

- 1분기 순이익 당초 추정치 크게 상회할 가능성, 영업이익 1조원 전망
- 브로커리지 비중 커버리지 가운데 가장 적음에도 워낙 막강한 북 비즈
- 조달 비즈니스도 원활, 보험사 인수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가격에서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지정학 리스크 완화 & 실적 모멘텀 강화, 코스피 신고가 경신

- 미국-이란 협상 기대감에 위험 선호 확산, 코스피 신고가 경신
- 흔들리지 않는 실적/수주 모멘텀, 반도체/2차전지 동반 강세
- 업종별 호재로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되며 대형주 중심 강세

### 미국-이란 협상 기대감에 위험 선호 확산, 코스피 신고가 경신

이란의 2차 협상 참여에 불확실성이 잔존한 상황이었지만,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협상단 파견을 승인하면서 종전 협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향한 강경 태도를 보였으나, 2차 협상을 위한 JD 밴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파견 소식으로 협상 진전 기대감이 부각. 또한 21일(현지시간)을 협상 시작으로 밝히면서, 휴전 기간이 하루 유예된 점도 완화적 태도로 인식

이러한 상황 속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확산. 현재 공포-탐욕 지수는 70을 가리키고 있어 '극단적 탐욕(Extreme Greed)' 구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폭 확대. 금일 외국인 투자자는 1조 3천억원, 기관은 7천억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 흔들리지 않는 실적/수주 모멘텀, 반도체/2차전지 동반 강세

지정학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실적/수주 모멘텀이 확대되는 국면

한국 4월 1~20일 수출은 504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 특히 반도체(YoY +182.5%)와 컴퓨터 주변기기(YoY +399.0%)의 수출이 급증한 모습  
수출 호조는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증명함과 동시에 실적 및 수출 기대감을 확대하면서 지수 상방 압력으로 작용

한편, 2차전지 업종은 ESS 모멘텀과 함께 벤츠와 공급계약 소식

**반도체:** SK하이닉스(+5.0%), 삼성전자(+2.1%), 주성엔지니어링(+30.0%)

**2차전지:** 삼성SDI(+19.9%), LG에너지솔루션(+11.4%), 에코프로머티(+7.9%)

### 업종별 호재로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되며 대형주 중심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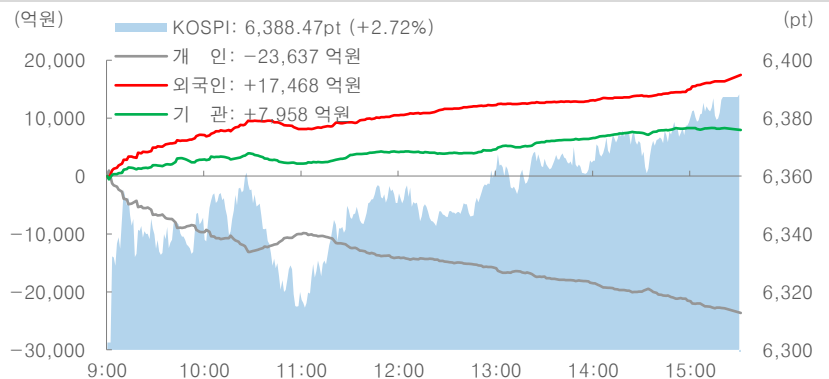
기존 선박 엔진의 데이터센터용 전력원 활용 기대가 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조선/엔진:** 한화엔진(+11.6%), STX엔진(+9.3%), HD현대중공업(+9.9%)

미국-이란 2차 협상 진전 가능성으로 중동 재건 수요에 따른 수혜 기대감 유희

**건설:** 대우건설(+16.9%), GS건설(+13.3%), DL이앤씨(+5.3%)

###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삼성전기 (00915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2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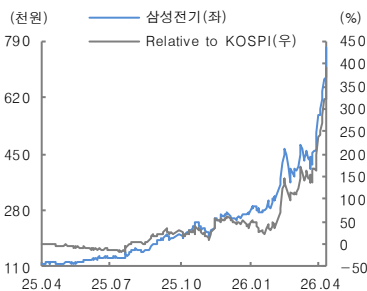
**772,000**

(26.04.21)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388.47
시가총액	58,576십억원
시가총액변동	1.76%
자본금(보통주)	37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72,000원 / 117,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403억원
외국인지분율	38.95%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4 인 23.79% 국민연금공단 10.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6.2	175.7	257.4	537.0
상대수익률	50.4	111.9	113.9	148.1



# FC BGA, 투자 확대는 1위로 도약!

- 영업이익은 2026년 68%(yoy), 2027년 28.2%(yoy) 증가 등 고성장 전망
- FC BGA, 베트남에 추가 투자 예상, AI 분야에서 1위로 도약
- 밸류에이션 재평가 진행: FC BGA, MLCC의 수익성 확대, M/S 증가

## 투자 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920,000원 상향(67.3%)

투자 의견은 매수(BUY)를 유지 및 목표 주가는 920,000원으로 67.3% 상향. 2026년, 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 대비 각각 10.2%, 18.2%씩 상향, 역대 최대 실적 2년 연속으로 경신할 전망. 2027년 주당순이익에 목표 P/E 46.5배(역사적 상단) 적용, FC BGA에서 추가 투자가 진행되면 글로벌 1위 수준으로 도약. FC BGA는 AI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진행, MLCC도 가격 인상 전망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진행 중으로 판단. 삼성전기의 주가가 지난 1달 동안에 66.2% 상승하였으나 2026년 2Q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상회, 실적 실적 진행될 것으로 추정,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 FC BGA 및 MLCC에서 높은 가동률 유지 및 고부가 매출이 증가,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이 예상을 상회 판단

## 밸류에이션 상황: ①26년/27년 최고 실적 ②FC BGA 추가 투자로 1위 도약 ③FC BGA & MLCC에 가격인상 전망, 그리고 M/S 확대

2026년 2Q에 주목한 이슈가 현실화되면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확대 ① 2026년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FC BGA에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지속, 그리고 대규모 추가 투자를 통한 AI 분야에서 글로벌 1위로 도약을 예상. 2026년 FC BGA 매출은 1.7조원으로 45.5%(yoy) 성장, 영업이익 비중(패키지 솔루션)은 28%로 전년대비 13%p 높아질 전망. AI서버 중심의 매출 증가, ASIC 업체에서 수주 확대로 2026년 4Q에 풀 가동 구간으로 진입, 2027년 글로벌에서 추가된 생산 능력이 제한적. FC BGA에서 가격 인상 확대, 믹스 효과가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2027년 추가적인 영업이익 상향의 가능성이 상존. 2026년 2Q, 베트남의 추가 투자가 결정되면 2028년 가동 예상, AI 분야에서 생산능력 및 매출 기준의 글로벌 1위 수준으로 도약을 예상. 투자는 ASIC 업체의 FC BGA 공급 물량 확대 요청이 높음. 투자 결정이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연결

또한 유리기판에서 추가적인 투자도 동시에 진행, 종전의 R&D 및 샘플 단계에서 초기의 시제품 양산 설비 단계로 전환을 예상. 일본 경쟁업체 대비 선형 투자, 성장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 관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분석. 여전히 유리기판은 차세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담당

② MLCC도 산업용, 특히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에서 수요 확대, 점유율 증가가 수반되면서 공급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삼성전기와 무라타(일본) 중심으로 BB울(수주액/출하액, 1.0 이상이면 호황 의미)이 2025년 말에 1.0 수준에서 현재 1.2~1.3 수준으로 확대, 수주액이 출하액을 상회, 공급부족이 확대. 가격 인상 가능성 환경이 조성 중으로 분석. 삼성전기의 MLCC 매출에서 전장용 및 산업용 비중 증가, 그리고 IT 물량은 고객 요구에 대응한 수준으로 분석. 전체 높은 가동률(95%~100%)이 2025년 시작으로 2026년에 지속된 상황. AI 서버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 수요 증가를 반영하면 MLCC에서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2026년, 2027년 MLCC 실적 추정에 가격인상 가능성을 미반영, 2026년 하반기에 가격인상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이익 상황을 기대. 현재의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완화, 재평가가 본격화될 전망

# HPSP (403870)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RA서지원**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8,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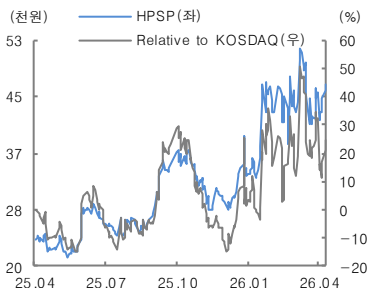
**46,600**

(26.04.21)

반도체업종

KOSDAQ	1179.03
시가총액	3,83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81%
자본금(보통주)	4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1,700원 / 21,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12억원
외국인지분율	29.08%
주요주주	히트2025홀딩스 유한회사 외 1인 20.52%
	미래에셋자산운용 9.5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0	41.9	29.6	95.8
상대수익률	-10.3	14.5	-4.1	18.8



## 다가오는 재평가의 시간

- 수주 개선 속, 향후 2년간 최대 매출액을 매년 경신할 것.
- 반도체 장비 업계 내 최대 수익성의 가치가 재평가될 필요.
- 목표주가를 58,000원으로 상향. 매수의견 유지.

### 투자전략: 다가오는 재평가의 시간

이익 전망 및 Target P/E 상향 분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58,000원으로 상향. 수주 환경의 개선 속, 향후 2년간 최대 매출액을 매년 경신할 것. 반도체 장비 업계 내 최대 수익성의 가치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 1. 로직/파운드리, 설비투자의 재개와 응용처의 확장

주요 국내 고객사의 설비투자 재개 및 Second Tier 고객군에서의 수주 환경 개선 효과 속, 로직/파운드리향 장비 매출액은 2025년 900억원 초반에서 2026년 1,244억원, 2027년 1,534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응용처의 확장이 동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이익 전망의 상향 가능성도 존재.

#### 2. NAND, 본격화되는 시장 침투

AI 추론이 이끄는 Storage 수요의 확장 속, 공급업계의 최선단공정 (9세대, 10세대 3D NAND) 전환투자가 재개. 고부가 제품 대응 강화 목적.

고무적인 부분은 고객 다각화 효과. 2025년까지 1개 고객사향으로만 양산용 장비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2026년에는 4개, 2027년에는 5개 고객사로 확대 될 것. 사실상 모든 NAND 공급업체향으로 진입을 완료하는 것.

Hybrid Bonding (Wafer to Wafer)을 최초 적용하는 10세대 3D NAND 시장의 개화가 고압 어닐링 장비 수요의 강력한 성장 동인으로 작용.

#### 3. DRAM, 우려는 기우

최근 DRAM향 침투율 둔화 우려가 부각. 다만, 지나친 우려는 기우. 주력 고객사 외 DRAM 1d에서 성공적으로 고객을 확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 유지.

- 공정 마진은 그간의 미세화 속 한계선에 근접. 미세화가 유발하는 열 발생량의 증가 영향을 감안 시, 고압 장비의 활용성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

- DRAM 1d 공정 개발은 3Q26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해당 시점 이후, 테스트 장비의 납품이 본격화될 것.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81	173	239	299	383
영업이익	94	90	135	173	246
세전순이익	114	94	143	185	260
총당기순이익	86	73	110	142	197
지배지분순이익	86	73	110	142	197
EPS	1,040	870	1,319	1,704	2,362
PER	25.0	39.2	25.9	20.0	14.4
BPS	3,350	3,623	4,362	5,486	7,269
PBR	7.8	9.4	10.7	8.5	6.4
ROE	31.1	25.0	33.0	34.6	37.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HPSP,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LS ELECTRIC (010120)

하인호

minho.hur@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17,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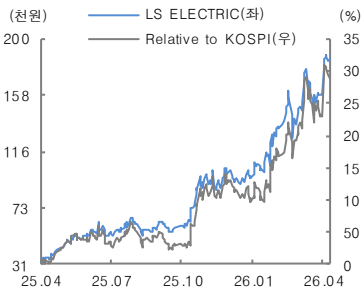
**184,700**

(26.04.21)

유틸리티업종

KOSPI	6388.47
시가총액	27,70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83%
자본금(보통주)	15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88,600원 / 34,52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24억원
외국인차분율	21.87%
주요주주	LS 외 10 인 48.48% 국민연금공단 8.7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2	82.5	196.9	422.9
상대수익률	-5.7	40.3	77.7	103.7



## 2026년은 기대에서 확신으로의 전환 과정

- 목표주가 217,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9%), 높은 프리미엄은 정당
- 1Q 영업이익 1,266억원(+45% YoY), 일회성 비용 감소 시 컨센서스 부합
- 2026년 영업이익 6,890억원(+61% YoY) 전망. 고객사 및 수주 확대 지속

###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17,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9%)

목표주가를 217,000원('29년 예상 EPS x PER 31배)으로 기존 대비 9% 상향. 이는 액면분할(주당 5,000원에서 1,000원) 반영 및 목표 밸류에이션 상향한 것임. 1) AI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배전반/배전기기 시장은 상위 6개업체가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높으며, 2) 중압 배전반/배전기기는 한번 설치되면 내부 제품(차단기 등)의 반복적인 교체수요가 발생하므로 사이클 산업의 초고압 전력기 업체 대비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정당함. 3) 특히, 동사는 직류 배전시스템(MV/LVDC)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HVDC용 변압기 등에서 공급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초고압 전력기기 업체 대비 30% 이상의 추가 프리미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단기 추가 급등 부담, 높은 밸류에이션의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고객사 및 수주 확대, 직류 전력기기 비중 확대, 실적 개선 등이 확인되며 추가 재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1Q26 영업이익 1,266억원(+45% YoY), 일회성 비용 감소 시 컨센서스 부합

1Q26 매출액 1.38조원(+33%, 이하 YoY), 영업이익 1,266억원(+45%), 영업이익률 9.2%(+0.7%p) 기록. 영업이익 컨센서스 1,330억원을 소폭 하회. 주식 성과급 관련 100억원 중후반의 일회성 비용 발생을 감안하면, 컨센서스에 부합. 수주금액 1.09조원(+27%), 수주잔고 5.64조원(+45%), 배전반/분전반 1.17조원, 변압기 3.1조원, GIS 0.36조원, 신재생 0.57조원 등) 기록

### 2026년 영업이익 6,890억원(+61% YoY) 전망. 고객사 및 수주 확대 지속

2026년 매출액 6.21조원(+25%, 이하 YoY), 영업이익 6,890억원(+61%), 영업이익률 11.1%(+2.5%p) 전망. 1Q26에는 은 및 전기동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 존재했으나, 3월 국내, 4월 해외 제품 가격 인상에 성공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폭 둔화 우려는 제한적. 2Q26 이후 수주 증가 속도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 4월 AWS로부터 1,700억원의 배전반/배전기기 패키지 수주를 받았으며, 향후 하이퍼 스케일러 고객사 추가 확보, 연료전지용 직류기기, 배터리업체용 글로벌 BESS용 PCS/BCP, 국내 제조사의 미국 생산기지 진출 및 증설 프로젝트 등으로부터 수주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또한 2026년 이후 국내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설비 증설, 한국전력의 전력망 구축 등으로 국내 전력기기 매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4,552	4,966	6,211	7,517	8,984
영업이익	390	426	689	976	1,257
세전순이익	333	410	674	969	1,253
총당기순이익	242	284	512	737	953
자배분순이익	239	287	498	716	928
EPS	1,591	1,911	3,320	4,776	6,184
PER	20.2	48.1	55.6	38.7	29.9
BPS	12,258	13,798	16,524	20,230	24,939
PBR	2.6	6.7	11.2	9.1	7.4
ROE	13.4	14.7	21.9	26.0	27.4

주: EPS와 BPS, ROE는 자배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LS ELECTR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한국금융지주 (071050)

**박혜진** 권용수RA  
 hyej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35,000  
 유지

**현재주가** 262,000  
 (26.04.21)

증권업종

## 브로커리지는 도울 뿐, 진정한 북 비즈니스의 강자

- 1분기 순이익 당초 추정치 크게 상회할 가능성, 영업이익 1조원 전망
- 브로커리지 비중 커버리지 가운데 가장 적음에도 워낙 막강한 북 비즈
- 조달 비즈니스도 원활, 보험사 인수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가격에서

### 1분기 순이익, 우리의 당초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 높음

우리는 지난 14일 발간한 증권업 프리뷰에서 동사의 1분기 순이익을 6,703 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음. 그러나 실적발표를 앞두고 동사의 순이익이 이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근거는 당시 프리뷰 시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문이 있었는데, 1) Space X 평가익 1,400억원, 2) 저축은행 총당금 일부 환입(우리는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 요인임. 따라서 이를 감안한 동사의 1분기 순이익은 8,220억원으로 기존 추정을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 어찌됐든 중요한 점은, 2026년 1분기 순이익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

### IMA 4월까지 2.5조원 발행, 발행어음 잔고 21조원까지 증가

증권은 4월까지 IMA 2.5조원 판매하여 조달 확보, 수익률 6% 내외를 목표로 투자자산 구성할 예정. 관리/운용보수 60bp가 연간 반영될 예정이며 성과보수는 엑시시 이뤄져야 반영됨. 연간 수익률 6% 달성 가능하다면 마진은 140bp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 발행어음 잔고는 21조원을 상회하였으며, 플레이어 많아짐에 따라 스프레드 축소에 대한 우려 있었으나 여전히 수익성 방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초기 출시 당시 사측이 목표한 스프레드 마진은 200bp 내외였음. 자기자본 대비 300%까지가 한도이기 때문에 원활한 영업을 위해 지주는 지난 1월 증권에 1.5조원 유상증자 단행

지난해 실적을 견인한 부문 중 하나였던 부동산 PF 수수료수익은 1분기에도 Deal flow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던 사업장은 매각을 비롯한 충분한 총당금 적립이 이뤄져 올해부터는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 특히 시장에 플레이어 자체가 몇 없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사업장 위주로 선별적으로 Deal 수행하고 있음. 전쟁으로 재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 있었으나 장기화 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보험업 진출 선언, 매물 보험사 모두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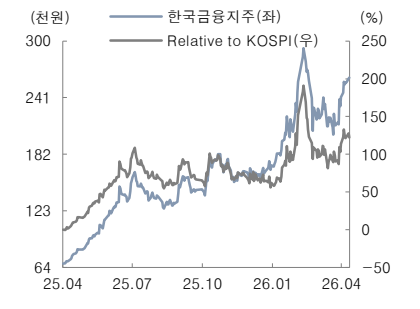
동사의 보험업 진출은 놀라운 일은 아닌데, 예전부터 꾸준히 보험사 M&A를 검토해왔기 때문. 최근까지도 매물로 언급되는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예별손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음. 예별손보는 최종 인수제안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으며 가격이 관건일 것으로 보임.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 계약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 할 것으로 고려되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335,000원,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1분기 유례없는 순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 통상 실적 발표 전 기대감이 정점이기 때문에 실적발표 후 주가는 하락하는 양상이나 브로커리지 비중이 적고 북 비즈니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사의 특성상 '26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만 하다는 판단. 사모대출 우려도 완화되고 있음

KOSPI	6,388.47
시가총액	15,63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7%
자본금(보통주)	27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92,500원 / 72,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32억원
외국인지분율	34.70%
주요주주	김남규 외 1인 21.30% 국민연금공단 13.1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7	45.0	51.2	259.9
상대수익률	1.1	11.4	-9.5	40.2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